올해 복경기, 어떤 변수가 있을까?

편 집 부

올해 육계 사육마리수 증가로 닭고기 공급과잉이 예견된 가운데 '종계 감축'을 통해 육계산업 안정을 꾀하려던 정부와 업계의 공동 자구책이 점차 빛을 바래고 있다.

이는 당장 종계 입식수수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지난 3월 종계 입식수수는 75만 2천수로 전년 동월(87만수) 대비 13.6%가 감소한 수치지만, 2월 대비(38만6천수) 증가한 수치다. 4월 종계 입식수수의 경우도 82만5천수로 3월 대비 9.8%, 전년 동월(75만6천수) 대비 9.1% 증가한 수치다.

곧 다가올 복경기가 걱정이다.

사실, 이번 종계감축 사업을 통해 복경기를 비롯 하반기 닭고기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차 감축 사업이 당초 시작하기로 했던 날짜보다 늦어진 데다, 이번 종계 감축사업의 핵심 키워드였던 2차 감축사업이 5월말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경기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 명분조차 잃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종계 감축으로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종계 업체들까지 병아리 입추를 늘려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더운 날씨다. 6월 초여름 날씨가 벌써 30도를 넘나들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은 무덥고 긴 여름이 예상되며, 게릴라성 폭우가 지역적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더위와 비에 무장되지 않은 농가에 피해가 가중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농가의 생산성이 하락, 닭고기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복경기는 업계의 자구책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줄 수도 있겠다.